

민선 7기 김승수 전주시장 첫 행보

가든 시티 조성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계획서에 결재 재해예방 긴급 대책회의 열고 호우·태풍 피해 대비태세 점검

민선 7기 업무에 본격 돌입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2일 "전주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시민 삶의 질도 높이고 전주를 살고 싶은 여행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시민의 기대도 커지고 초선과 달리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 "재선시장이 해야 할일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무게감이 훨씬 더 커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중호수 권역, 전주역사 전면개선,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공사

등의 사업 결과가 2~3년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머무는 관광지로, 살고 싶은 여행지로 될 것"이라며 전주 전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이번 일기 내에 컨벤션과 호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마이스 산업으로 도시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주가 기업 유치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었는데 드디어 20만평

산업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곳에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을 지속해서 유치하려면 토지가 많이 필요한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라는 도시를 계속해서 산업도시로 만들어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는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인근 시·군으로 하고 주거환경을 전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민선 7기 첫 업무로 맑은 공기 도시, 가든 시티(Garden City)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계획서에 결재했다.

이 계획안에는 오는 2026년까지 8개년 동안 공원과 도로, 아파트, 주택, 공장, 골목길, 옥상 및 산림지역 등에 총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 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취임식을 취소했다. 대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예방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피해상황과 복상하는 태풍 피해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송효철 기자

'사무장 병원' 적발 요양급여 14억 끌꺼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한방병원 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 모 한방병원 운영자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비의료인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재단을 10억원에 인수, 요양병원을 차린 뒤 지난해 2월까지 14억7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재단 자금 9억여 원을 횡령했으며,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출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씨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기획실장인 A씨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2016년 8월 신청한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자 재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사용처를 연쇄 추적해 피의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직원 월급 등 운영비로 재단 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며 "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설립을 인정한 판례는 적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3회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 걷기대회'가 2일 전국 해설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공연장과 건지산 편백나무숲, 덕진공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 걷기대회... 전국 400여명 참석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해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400여명 전주서 네트워크 교류 건지산 편백나무숲부터 덕진공원까지 약 5km 함께 걸으며 슬로투어리즘 실행

제3회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 걷기대회'가 2일 전국 해설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공연장과 건지산 편백나무숲, 덕진공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중앙협의회 소속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참가한 이 행사는 수원시와 울산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전주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건지산 편백나무 숲길부터 덕진공원의 만개한 연꽃으로 이어지

는 약 5km 구간을 걸었다.

여춘희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회장은 "이번 걷기대회는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의 네트워크 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문화해설사들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도입됐다"며 "더욱 공익적 가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의 해설사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걷기행사가 전주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며, 여름에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도 건지산 편백숲 등 생소했던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18년도 전라도 정명 천년의 해를 기념하고 전주 슬로투어리즘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주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1부 전통공연에 이어 2부 개회 및 분식 등으로 이어졌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업데이트

문화달력 · 지도서비스 · 콘텐츠 업데이트 개시 한옥마을 공연 · 축제 · 전시 등 정보 파악 가능 체험 · 포토존 · 10대 명소 등 한옥마을 매력 소개

전주시가 연간 1100만명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시는 전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공연·행사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화달력을 개발하고 한옥마을 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업데이트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시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축제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음에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어 체류형 관광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파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관광객들이 미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한옥마을 등 전주시 전체 공연행사를 선택해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목록 나열식 공연행사 정보를 달력식으로 표출해 월별 현황은 물론, 날짜별 공연 정보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시는 △한옥마을 유래 △한옥마을 관광 10대 명소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문화시설 등으로 관광객들이 주목할 만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포토존 메뉴를 추가했다.

또한, 한옥마을 내 숨겨진 명소 등 여행포인트를 소개함으로써 SNS 이용이 많은 젊은 세대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객들의 전주방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재방문을 유도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한옥마을의 이미지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재양성 나서

초·중·고·대학 연계 통한 스마트 디바이스 캠프 열어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이끌어갈 창의인재 양성에 나섰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 이하 진흥원)은 (예비)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실현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주시뿐만 아니라 평소 ICT기술을 접하기 어려운 타 시군 초·중·고·대학생들에게 ICT분야 전문교육, 멘토링, 제품화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작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호남권 ICT 디바이스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2일부터 4일까지 전주대학교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발굴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창업 아이디어 발굴교육 △창업 사업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ICT(정보통신기술)의 의미를 익히고, 최신 기술 트렌드부터 창업 시 플레이션까지 기술창업의 모델을 개발해 볼 수 있다.

진흥원은 이어 오는 5일과 6일에는

일실 덕치초등학교 재학생 점원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디바이스 창작문화 확산 캠프'를 이어갈 계획이며,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은 정수장 계곡공업고등학교 재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캠프를 통해 평소 ICT기술을 접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블록코딩도구를 활용한 코딩교육과 무선조종자동차 제작 체험 등의 DIY 창작교육을 통해 사물인터넷(IoT)을 구성하기 위한 각종 센서의 의미를 익히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ICT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창작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우수한 창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창작문화 인식 확산과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하여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제품화 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